

# 무안 '와송 품은 양파' 유통망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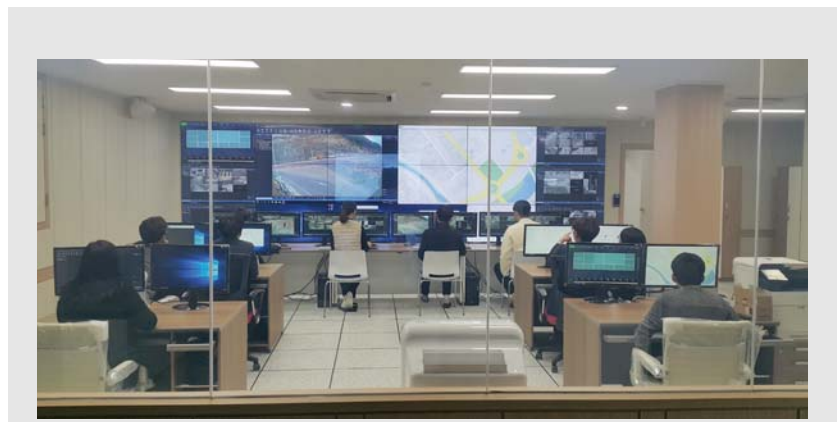
무안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사라(대표 최상순)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가락시장에서 서울청과(주대표이사 김용진)와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무안군에서 출하되는 '와송 품은 양파'를 안정적으로 유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하기로 했다. '와송 품은 양파'는 '비위솔'로

불리우는 와송을 발효시켜 만든 액비를 성장과장에서 10~12회 살포해 재배한 양파로 일반 양파에 비해 저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여러 실험결과 입증됐고 특히,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소 분석 결과 일반 양파보다 6배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100g당 5mg)을 함유해 주목받고 있다. 플라보노이드(Flavonoids)는 항균, 항암, 항산화

농업회사법인 (주)사라, 서울청과(주)와 MOU  
무안·신안 15농가서 5만망 생산해 납품 계획  
일반 양파比 저장성 · 플라보노이드 성분 6배

항산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사라를 올해 무안·신안지역 15농가와 '와송 품은 양파' 5만망(20kg)을 생산해 서울청과(주)에 납품할 계획이다. 가락시장에서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도매법인 서울청과(주)는 납품받은 양파를 전차거래와 유통망을 활용해 백화점 등에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재배농가에 보다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과(주) 강석근 상무이사는 "더 발전하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면서 "와송 품은 양파가 무안양파의 명성

을 되찾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엔 서울청과(주) 강석근 상무이사, (주)사라 최상순 대표, 김정길 재경무안군항우회장, (주)에이엠그룹코리아 박정배 회장(무안읍 출신), (주)다온에프엔비 김성업 회장(일로읍 출신), 강승용 무안군청 농산물유통담당 등 항우와 유통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주민 안전지킴이 역할 '특특'

곡성군은 시험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가 곡성군 안전지킴이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제센터에서는 지난 2일 새벽 1시 30분경 곡성중요초등학교 앞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 차량털이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관제센터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곡성군 만들기'를 위해 13여억 원을 들여 지난 해 12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관제요원 12명을 선발하여 365일 무휴로 실시간 관제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현재는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역 내 307대의 CCTV를 상시 관제하고 있으며, 주민안전망 확충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옥곡면, 석곡면, 옥곡면 소재지 권역 마을방범 CCTV 구축사업을 통하여 여성안심귀갓길 등 안전 취약지역에 30여 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석근 안전건설과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군민 안전을 위해 365일 멈추지 않는 실시간 관제로 방범, 폭행, 화재, 청소년 탈선 예방 등 안전한 곡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영화 1987 촬영지 연희네슈퍼' 인기...목포 관광명소로

설 연휴 하루동안 500~800여 명 찾아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연희네슈퍼가 목포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며 설 연휴 기간 인파로 북적였다. 목포시는 연희네슈퍼가 설 연휴 동안 하루 500~800여 명의 관광객

과 귀성객이 찾으며 목포의 신형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설에 앞서 연희네슈퍼를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영화 촬영 당시 비치된 각종 생활용품

과 소품 등을 재현했다. 1980년대 모습으로 돌아간 연희네슈퍼 인파는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로 흥미를 자극했다. 특히 중장년층은 전시된 생활소품과 과거, 담배, 사탕 등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고 평범한 서민 가정의 모습으로 재현된 연희네방에 향수를 느꼈다.

슈퍼 밖에 전시된 옛 택시(차종 스텔라)도 애뜻한 감성을 자극했다. 또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슈퍼 뒤 31m의 방공호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장이 됐다. 시 관계자는 "연희네슈퍼 주변을 관광지로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라며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 겨울특강 프로그램 '인기'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생활편의 증

진 과 문화·수련·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자 겨울특강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책으로만 배우는 과학을 떠나 재

밋고 직접 실험을 통해 깨닫는 체험교육이란 주제로 과학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초등학교4학년~중학교3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창의적인 드론 아카데미는 점차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드론을 직접 조정하고 드론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항공의 기초 지식과 비행원리를 터득,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진로탐색의 계기가 마련하고자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프로그램 진행방법과 교육 내용 등 설문

문항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빠르게 설계하기 위해 양식조리기는 사 자격증 반을 4월에 진행하고 미용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메이크업, 네일, 율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고 사용례 외 모에 대한 자신감과 동시에 정서를 함양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고자 뷰티이카데미 '이뵤져라, 이뵤져'와 요리를 통해 창의력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와 맛있는 요리를 친구, 가족 등과 나눠 먹으면서 나눔에 대한 재미를 느끼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나눔프로젝트 '맛있는초개'를 2월부터 시작해 월1회씩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나눔으로 2018년 문 열어요"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 물품 나눔행사

영암군이 운영 중인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송영희)는 지역에서 후원받은 방한복(100벌)과 떡국용 떡(30kg)을 다문화가족에게 전달 해드리는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2018년 문을 열었다. 지난 2월 10일 다문화가족 시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며느리나라 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명절을 앞두고 이번 교육에는 베트남, 중국, 네팔, 몽골, 캄보디아에서 온 며느리를 둔 시부모님과 결혼이민자가 함께 며느리나라 문화와 명절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가족 간의 화합과 서로

의 문화를 존중하며 건강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월 8일에는 영암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취학전 학부모교육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해, 일일장, 학습준비물, 초등학교 미리알기 등 결혼이민자들과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영암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의 강의로 센터 교육장과 영암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진행되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있거나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 시켜 주는 교육이 되어 호응을 얻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임동 010-2656-4543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오치 010-7532-3313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동운 018-611-7751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